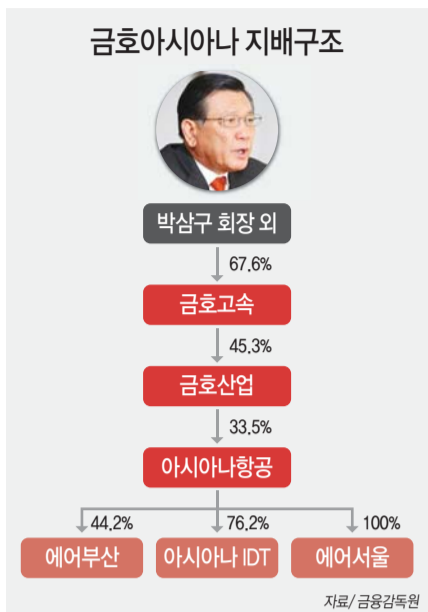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 한 달 시간 벌었지만 거센 매각 압박

산업은행-아시아나 MOU기간 연장
채권단 고강도 자구안 제출 요구
박삼구 회장 사재 턱없이 부족
인수후보에 금호석유화학 '주목'

KDB산업은행이 지난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을 한달 간 미뤘다. 기한만료전 아시아나항공의 자구계획을 보고 새 약정 체결유무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확실한 자구안을 내놓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떼어내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시장의 신뢰'를 강조해 자산 매각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약정을 한달 간 연장하는 대신, 박삼구 회장의 퇴진에 이어 금호고속 지



분이나 아시아나 매각 수준의 강도가 필요하며 고강도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이후 방향은 자구계획안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약정 연장과 관련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능성도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지분 매각 ▲산업은행 인수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이 있다. 하지만 금호그룹 대주주인 박삼구 회장이 내놓을 수 있는 사재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산업은행과의 약정을 체결하며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금호고속(31.1%),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도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등 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법도 나온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항공사가 파산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입장이지만 무조건 자금을 공급해 국유화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말더라도 정상기업으로 만들고 매각하는 브리지(중간 연결)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이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정상화 이후 매각하겠

다는 설명이다.

결국 대규모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 금호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시아나항공 매각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룹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로 프리미엄을 크게 얹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기업은 SK그룹과 한화그룹, 신세계 등이다.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항공산업과 대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매물 가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SK그룹은 그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후보군 'SK·미래에셋 등'

이와 함께 미래에셋금융그룹도 언급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은 증권업 외에도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호텔이나 레저시설,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그룹 해외법인 글로벌X의 세전이익을 약 700

억원으로 끌어올린 박현주 회장이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진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금호석유화학도 주목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최대주주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33.47%)에 이어 금호석유화학(11.98%)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33.48%+1주를 확보하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들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박 회장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재무부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9801억원, 8821억원의 재무부담이 예정돼 있다. 2022년 이후에는 2조5087억원의 재무부담을 져야 한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등급 에어컨이 갑자기 4등급... "같은 제품에 기준 달라져"

(에너지소비효율)

정부 에너지정책 일환으로 기준 강화
등급 상향 위해선 고가 원자재 필요
"소비자에 부담 떠넘기는 것" 지적

가전 업계가 여름철을 앞두고 엄격해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긴장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정부 납품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제품 에어컨은 모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2등급 미만으로 받았다. 대부분은 4등급이다. 삼성전자 무풍에어컨과 LG전자 휘센, 캐리어와 대우위니아 둘레바람 등 신제품들도 마찬가지다. 출시 예정인 LG시그니처 에어컨만 2등급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에너지를 더 소비하게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전기요금으



LG전자는 이번주부터 경남 창원 에어컨 라인을 풀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에어컨 소비가 급증하면서 생산량을 전년비 10% 이상 늘렸기 때문이다. 사진은 LG전자 직원들이 생규 에어컨을 생산하는 모습. /LG전자

로 보면 소폭 줄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한 영향이다. 당시 에어컨과 냉난방기, 상업용 냉장고

와 멀티히트펌프 등 4개 품목 등급 기준을 높이면서 1등급이던 제품이 4단계로 주저앉았다.

당장 유통업계가 진땀을 뺐다.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소비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소비효율을 문제삼는 경우가 늘어나면서다. 정부 기준이 상향됐음을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를 포기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정부 기관 납품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조달청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당장 일부 업체는 에어컨 입찰 상당수를 일단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등급을 높이려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기술적으로는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지만, 더 비싼 원자재를 써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실제 전기요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만큼, 정부가 원전 폐지 등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소비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노트북 오디세이'

강력한 쿨링 시스템으로
고사양 게임 오래 즐긴다

삼성전자가 게이밍 노트북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 (사진) 2019년형 신제품을 8일 출시한다.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는 메탈 디자인에 발열 제어 성능을 대폭 향상한 쿨링 시스템을 적용해 최적의 성능으로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강력한 발열 제어가 가능한 '제트 블레이드 쿨링 시스템'을 적용했다. CPU와 G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쿨링 팬으로 전달하는 히트파이프를 추가 탑재해 방열 면적을 기존보다 약 40% 늘려 냉각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0.25mm 두께의 '제트 블레이드' 83개를 장착한 2개의 '제트 블레이드 블로어'를 통해 기존보다 약 15% 더 많은 공기를 배출한다.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는 최신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지포스 2060, 인텔 8세대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해 고사양 게임도 최적의 환경으로 즐길 수 있으며 144Hz 고주사율과 엔비디아 지싱크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끊김 없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준다.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에는 제품의 성능을 최대 15% 향상시켜주는 '비스트 모드'를 탑재해 고사양 게임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는 15.6형(39.6cm) 모델로 가격은 메모리와 운영체제, SSD 등 세부 사양에 따라 248만~298만원이다.

/구서윤 기자

"'갤S10' 선택 감사합니다"... 고동진 사장, 고객에 감사 메일

(삼성전자)

전세계 130여개국 고객에 발송

"갤럭시S10을 선택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삼성전자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고동진 IM부문장(사장)이 8일 갤럭시S10을 구매한 고객에게 감사를 전하는 메일을 보냈다. IM부문장이 이 같은 메일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고 사장은 이날 전 세계 갤럭시S10 구매 고객에게 자신의 명의로 "올해는 갤럭시가 탄생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해"라며 갤럭시S10을 구매한 고객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지난달 6일 인도 뉴델리 '갤럭시 S10' 출시 행사에서 갤럭시 S10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메일은 전 세계 130여개국 갤럭시S10 구매 고객 중 삼성 계정이 있고,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고 사장은 "지난 10년간 고객의 성원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 오티지스크린,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향후 10년간 모바일 혁신을 이끌고, 다음 세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삼성전자 측은 메일 발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혁신을 선도해왔던 향후 10년 동안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S10 시리즈는 지난달 8일 글로벌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판매량이 전작인 갤럭시S9 대비 1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서윤 기자 yuni2514@